

동학농민전쟁 당시 일본군의 개입과 그 영향

裴 允 燮

(성균관대 연구교수)

1. 머 리 말
2. 교조신원운동과 일본
3. 제1차 봉기와 일본군의 출병
4. 집강소 시기 농민군의 활동과 일본
5. 제2차 봉기와 일본군의 농민군 살육
6. 맺 음 말

1. 머 리 말

1894년에 발발한 동학농민전쟁은 청·일전쟁을 야기하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이 때문에 한국근대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근대사의 전개에도 중요한 분수령을 이룬 사건이다. 동학농민전쟁이 일본군이 주도한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군에 의해 패배하면서 조선은 사실상 식민지의 길을 걷게

되었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패한 청나라는 이후 대국으로서의 체모가 크게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半식민지 상태로 전락하여 일본을 비롯한 서구열강들의 먹잇감으로 되고 말았다.

동학농민전쟁이 가진 이러한 역사적 의의 때문에 그동안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외국에서도 적지 않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특히 박종근의 연구 이래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하였던 일본군의 농민군진압과 살육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핀 연구가 강효숙, 이노우에 등에 의해 발표되었다. 또한 나카즈카는 최근 1894년 당시 일본군의 중요한 침략행위인 경복궁 강제점령의 실상이 지금까지 일본측의 사료나 연구저작들을 통해 왜곡되고 은폐되어 왔다는 사실과 일본군이 자행한 침략행위의 구체적 내용, 경복궁 점령의 의미 등을 새롭게 밝혀내었다.¹⁾

동학농민전쟁은 농민군이 내걸었던 대표적 구호인 “輔國安民”이 상징하듯이 ‘反封建’과 ‘反外勢’의 과제를 동시에 제기하며 일어났다. 이는 동학농민전쟁의 발발과 전개과정이 ‘外勢’라는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 글에서는 동학농민전쟁의 전개과정을 일본군의 개입 및 침략행위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농민전쟁의 전개과정을 교조신원운동과 척왜양 운동 시기, 제1차 봉기, 집강소 시기, 제2차 봉기로 나누고, 각 시기에 나타나는 동학농민군의 일본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일본군의 동향을 검토하고, 그것이 동학농민전쟁의 전개양상, 농민군의 생각과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밝혀 보고자 한다.

1) 박종근 저, 박영재 옮김, 『청일전쟁과 조선』, 일조각, 1989; 나카즈카 아키라 지음, 박맹수 옮김,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푸른역사, 2000; 姜孝叔, 『第2次東學農民戰爭과 日淸戰爭』, 『歷史學研究』 762, 2002, p. 19; 井上勝生, 『갑오농민전쟁(동학농민전쟁)과 일본군』, 『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적 의미』, 서경, 2002, p. 318.

2. 교조신원운동과 일본

개항 직전부터 조선의 민중들에게는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팽배해 있었다.²⁾ 아직까지 일본에 의한 침략행위는 물론 일본과의 구체적인 접촉조차 없었지만, 민중세계에 ‘반왜’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7년 여에 걸친 일본의 침략으로 전국토가 황폐화되다시피 한 임진왜란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후 일본의 강요에 의해 개항을 하고 나서 일본의 외교관과 상인 등이 조선에 진출하고, 임오군란(1882), 갑신정변(1884) 등을 거치며 일본에 대한 적대감은 강화되어 갔다. 개항 이전까지만 하여도 일본에 대한 조선 민중들의 인식은 문화적 우월감에 기초한 멸시와 경멸감이 주조를 이루었으나, 점차 ‘종사를 위협하는 야심국’ 일본에 대한 적대로 구체화되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이른바 ‘개화당’은 그런 일본과 결탁한 ‘겨레의 배반자’, ‘賣國之賊’으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반일감정이 민중에 의해 집단적이고 본격적으로 표출된 것이 1892년 말부터 전개된 동학교도들의 교조신원운동과 斥倭洋 운동이었다.³⁾

교조신원운동은 1892년 10월 일군의 동학교도들이 교조의 신원과 관리들의 침탈금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공주에서 개최하면서 시작되었다.⁴⁾ 공주에

2) 배항섭, 「개항기 민중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과 대응」, 『역사비평』 1994년 겨울호 참조.

3) 개항 이후 조선 민중들의 일본관에 대해서는 배항섭, 「동학농민군의 대외인식」, 『태동고전연구』 20, 2004 참조.

4) 여기에 대해서는 金義煥, 「1892·3年の 東學農民運動과 그 性格」, 『韓國史研究』 5, 1970; 趙景達, 「東學農民運動과 甲午農民戰爭의 歷史的 性格」,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9, 1982; 鄭昌烈, 「古阜民亂의 研究」(上)·(下), 『韓國史研究』 48·49, 1985; 李離和, 「전봉준과 동학농민전쟁」(1), 『역사비평』 계간 7호, 1989; 張泳敏, 「東學의 大先生伸冤運動에 관한 一考察」, 『白山朴成壽教授華甲紀念論叢-韓國獨立運動史의 認識』, 1991; 박찬승, 「1892, 1893년 동학교도들의 ‘신원’운동과 ‘척왜양’운동」, 『1894년 농민전쟁연구 3』, 1993; 배항섭, 「1890년대 초반 민중의 동향과 고부민란」, 『1894년 농민전쟁연구 4』,

모인 동학교도들은 교조의 신원과 교도에 대한 탄압금지 등 종교적 요구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서학에 대한 반대와 日商의 상행위에 따른 폐해를 언급하며 반대하였다. 그러나 아직 척왜양 구호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어 11월 3일에 동학교도들이 수천명이 모인 전라도 삼례집회와, 12월 1일 충청지역의 교도들과 전라도 지역의 일부 동학교도들이 모인 제2차 공주집회에서 동학포교의 자유와 관리들의 침탈금지를 요구하였지만, 외세와 관련된 주장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동학교단에서 복합상소를 논의하기 위해 12월 6일 보은에 都所를 마련한 뒤 정부에 보낸 <朝家回通>이라는 상소문에서도 외세에 대한 반대 요구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동학농민군이 척왜척양 구호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는 것은 1893년에 들어와서부터이다. 일찍부터 ‘반봉건’ 뿐만 아니라 ‘반외세’ 과제를 동시에 포착하고 있던 전봉준은 1890년 전후하여 동학에 입도하였다. 동학에 입도한 전봉준은 광범위한 계층을 포괄하는 연합을 構想하며, 서울로 가서 정국의 추이와 외세의 동태를 살피기도 했다. 또한 전봉준과 정치적 성향 면에서 유사한 점이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었던 대원군과도 접촉하면서 보국안민의 방책을 모색해 나갔다.

전봉준은 1892년 11월의 삼례집회를 계기로 동학교단 내에서 중요한 인물로 부상하였으며, 1893년 1월부터는 동학교단과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본격적으로 척왜양 운동을 시작하였다.⁵⁾ 우선 전봉준은 1893년 1월 10일 직접 ‘倡義文’을 작성하여 전라도 각 군의 衙門에 붙였다. ‘창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창의’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교조신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斥倭洋이 그 주조를 이루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2월 10일경에는 전라도 동학교도들이 전라도 參禮에서 두번째로

1995; 『1893년 동학교도와 大院君의 擧兵 企圖』, 『韓國史學報』 12, 2002 참조.

5) 척왜양 운동의 자세한 전말에 대해서는 배향섭, 앞의 글, 2002 참조.

집회를 열고, 전라감사에게 또다시 글을 보냈다. 이 글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전에 충청·전라감사에게 보낸 글이나 복합상소문과 달리 교조신원이나 교도에 대한 탄압금지에 대한 요구가 완전히 사라지는 반면, 거의 전적으로 斥倭洋을 통한 輔國이 강조되면서 왜와 양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의지가 처음으로 표출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 무렵 삼례의 동학교도들은 전라도 각 군의 관아에도 “倭洋을 剿滅하기 위해 창의하니 智勇之人이 있으면 官에서 추천하여 보내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檄書를 붙였다.

척왜양 운동은 전라도 지방에서만 전개된 것이 아니었다. 1893년 2월 11일에 시작된 동학교도들의 광화문 복합상소 운동을 전후한 시기 서울의 외국공관 등에도 척왜양 방문이 연속적으로 나붙었다. 이 가운데 2월 18일 미국인 존스(H. J. Jones)의 집 교회당에 붙은 격문에는 3월 7일까지 조선을 떠나지 않을 경우 무장하여 공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에 앞서 3월 2일에는 일본공사관 벽에도 척왜 격문이 붙었다. 여기에는 서양인들에게 통고한 내용과 달리 임진왜란 때의 참혹함을 상기하며 즉시 일본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한편 1893년에 들어 경향 각지에서 전개된 척왜양 운동은 척왜양을 명분으로 내세워 정부를 전복하려는 정변계획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진행되었다. 이 거병 기도는 전봉준 등 동학교단 내의 변혁지향적인 세력과 대원군이 연계하여 추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패하였다. 이후 1893년 3월에 개최된 동학교도들의 보은·금구집회에서도 척왜양 구호가 전면에서 등장하였으며, 이를 명분으로 전봉준 등 변혁지향세력과 대원군은 거병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역시 좌절되고 만다.

실패의 원인은 우선 교단측이 병란을 기도한 세력들의 의도와 달리 척왜양 운동에 반대하여 보은집회를 조기에 해산시키고 말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 대원군측의 준비도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직까지 변혁지향적인 세력의 조직적 기반이 독자적 역량만으로는 동학교도들을 동원한 병란 등의 거사를 도모하기에 취약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

엇보다 중요한 점은 대중들의 의식 수준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척왜양 구호 그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나 긍정하였을 것이지만, 그를 위해 의병을 일으키기에는 무리가 많았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항 이후 민중들은 일본에 대해 반감과 경멸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宗社를 위협하는’ 구체적인 침략행위나 여기에 준하는 사건이 매개되지 않고서는 ‘의병’의 봉기 등 집단적인 물리적 충돌로까지 발전하기는 어려웠다.⁶⁾ ‘교조신원운동’ 당시 동학교도들은 倭洋이 나라의 심복에까지 들어와 준동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매우 분개하고 있었으며, 일각에서는 “우리의 利源을 빼앗아가는 外夷를 온 나라의 義旅와 함께 협력하여 물리치자”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⁷⁾ 그러나 일본에 의한 구체적인 침략행위가 가시화한 상황은 아니었다.

외국상인들의 內地行商이 본격화하는 1880년대 후반부터 일본상인들의 활동 무대도 내륙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양국인 사이의 충돌도 더욱 잦아졌다. 특히 日商에 의한 미곡유출은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쳐 일부에서는 일상의 미곡유출에 대해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로 받아들일 정도였다.⁸⁾ 따라서 ‘교조신원운동’ 당시에도 일찍부터 이에 대한 반대요구가 제기되었고, 농민전쟁 당시에도 중요한 요구조건 중의 하나였다.⁹⁾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주로 포구를 중심으로 몇명의 일상에 의해 행해지고 있었다. 또 농민군들도 통상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개항장 밖에서 행해지는 잠상, 밀매행위를 반대하고 있었다.¹⁰⁾ 따라서 각지에서

6) 전봉준이 2차 봉기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군에 의한 경복궁의 침범이라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그것을 국토에 대한 침략행위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전봉준은 군사적 침략행위가 아닌 단순한 통상행위에 대해서는 침략행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全珠準供草』 再招問目, 『東學亂記錄』 上, p. 340). 이후의 의병전쟁은 물론이고 왜에 대한 집단적인 항의나, 공격이 일어난 임오군란이나 갑신정변, 제주도 어민들의 운동 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7) 『聚語』, 『東學亂記錄』 上, p. 123.

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3, p. 210 참조.

9) 김윤식, 『續陰晴史』(上), p. 324.

산발적인 충돌은 있었지만, 전국차원에서 의병을 일으켜 대처할 상황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대부분의 민중들에게 아직 척왜양 구호는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항쟁의 대열에 뛰어들게 할 만큼 설득력 있는 구호는 아니었다. 실제로 척왜양 운동 시기에 동학교도들에 의한 외국인이나 외국공관에 대한 공격은 없었다.

이와 같이 교조신원운동과 척왜양 운동 시기에 변혁지향세력은 척왜와 척양을 주장하며 거병을 기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1894년 3월 20일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반일을 주장하는 민중들의 움직임은 1893년 11월에 일어난 개성민란에서 난민들이 “일본인을 붙여서 살게 하는 자는 그의 집을 부술 것”을 주장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하였다.¹¹⁾

그러나 1882년 무렵부터 청·일간의 전쟁을 예견하며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일본 군부에서는 일찍부터 조선에 대한 침략계획을 세워두고,¹²⁾ 조선을 침략하여 자신들의 수중에 넣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미 명치유신 직후부터 조선에 대한 군사적 정보 첩보활동을 시작하였던 일본은 1893년 동학교도들의 교조신원운동이 일어나자 상인으로 변장한 일본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특히 동학교도들의 동태에 관한 정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1893년 12월에는 조선에 대한 정보 및 첩보활동을 위해 군함 筑波호와 大島호를 조선으로 파견하여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는 1894년 3월 말까지 조선의 도로, 조선에 있는 서양 각국의 선박, 평안도와 황해

10) 『全瑋準供草』再招問目, p. 340쪽; 『대한계년사』(상), p. 86.

11) 이 때 松都의 ‘亂民’들이 요구한 <府外村弊癘> 15조는 다음과 같다. 1. 還上加俸錢 還推事. 2. 結錢再捧錢 還推事. 3. 水蓼稅錢種蓼間稅事. 4. 各項分錢事. 5. 潛造者 罪之當者 而勿推後連累事. 6. 京校兵丁作弊事. 7. 挪引輩雜技騙財者 毀家事. 8. 出入營幕本府生弊者 逐出事. 9. 各處湫稅 革罷事. 10. 生進朝官若非重罪 則不可因械事. 11. 各邑都賣 一一革罷事. 12. 無罪人勒捧錢還推事. 13. 田畝賣買年久者 不可憑勢還退事. 14. 私債不可憑公收刷事. 15. 日人接主者 毀家事(『明治 27年 公文雜輯』卷 五, 艦長外國諜報及帝國公使領事報告). 『大阪朝日新聞』, 明治 28年 1月 3日,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이하 『총서』) 23, p. 138에도 이와 관련된 기사가 실려 있다.

12) 후지무라 미치오 지음, 허남린 옮김, 『청일전쟁』, 소화, 1997 참조.

도 지방의 상황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첩보 및 정보활동을 추진하였다.¹³⁾ 또한 이때 일본군은 조선 정부가 1892년 10월부터 준비하여 1893년 10월경에 개교하였던 강화 갑곶 鎭海樓의 해군군사학교를 수차례에 걸쳐 그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물론 군사학교의 정확한 도면까지 확보해 두고 있었다.¹⁴⁾ 1894년 3월에 발발한 동학농민전쟁은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기회를 제공해줬다.

3. 제1차 봉기와 일본군의 출병

1893년 말부터 전봉준은 보국안민을 위한 거사계획을 크게 수정하게 된다. 교조신원운동과 척왜양 운동 시기의 계획은 척왜양을 내걸고 곧장 서울로 쳐들어가 반란을 기도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전봉준은 고향으로 돌아가 전라도 각지에서 민란을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킨 다음, 그 힘을 모아 전주 감영을 점령하고, 다시 서울로 쳐들어가 조정의 권위를 축멸하고 조정을 개혁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그것은 1893년 11월경에 계획된 <사발통문 거사계획>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사발통문 거사계획>에서 결의된 거병 방안은 다음과 같다.

- 一. 古阜城을 擊破호고 郡守 趙秉甲을 梟首호는 事
- 一. 軍器倉과 火藥庫를 占領할 事
- 一. 郡守의게 阿諛호야 人民을 侵漁호는 貪吏를 擊懲호는 事
- 一. 全州營을 陷落호고 京師로 直向호는 事¹⁵⁾

13) 姜孝叔, 『第2次東學農民戰爭과 日淸戰爭』, 『歷史學研究』 762, 2002, p. 19.

14) 이에 대해서는 배항섭, 『갑오개혁 전후 군사제도의 변화 -해방제도와 근대적 해군 창설 계획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28, 2001 참조.

15) 『전봉준자료집』, 『나라사랑』 15, 1974, pp. 134~135.

이러한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전봉준은 1894년 1월 10일 고부에서 민란을 일으켰다. 전봉준은 고부민란을 기화로 인근 고을에서도 민란이 일어나면, 그 힘을 결집하여 전주성을 점령하고 서울로 쳐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봉준의 뜻대로 전개되지 못하였다. 3월 3일경부터 끝까지 남아 있던 고부민들도 해산하기 시작하였고, 13일경에는 전봉준도 부하 50여 명만 거느리고 고부를 빠져나가 무장의 손화중에게 갔다.

3월 10일경부터 인근 읍의 ‘난민’들이 본격적으로 합세하기 시작하여 3월 16일에는 농민군 수천명이 무장 冬音峙面 堂山에 집결하였다. 처음에는 100여 명에 불과하였으나, 3월 16일부터 3월 18일에 걸쳐 사방에서 몰려와 1,000여 명으로 증가하였고, 무장기포 당시에는 약 4천명이었다. 이와 같이 본격적인 ‘擧義’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이 일정하게 갖추어지자 전봉준 등 지도부는 드디어 3월 20일에 <茂長布告文>을 발포하고 농민전쟁을 시작하였다.

<사발통문 거사계획> 이후 농민군의 움직임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사회 내부의 부정과 부패 일소에 관한 요구와 구호가 전면에 등장하고 척왜양 구호는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는 점이다. 물론 <무장포고문>이나 4대명의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외세를 배격하고자 하는 의도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위급함을 坐視할 수 없어 팔도가 마음을 합치고 億兆가 詢議하여 지금 義의 깃발을 치켜들고 ‘保國安民’으로 죽음의 맹서를 하였다”는 <무장포고문>의 내용이나, 이날 발표된 四大名義에도 반외세와 관련된 조항이 들어 있다.

또 무장에서 기포한 농민군은 <무장포고문>을 발포함과 아울러 起包의 목표와 행동지침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四大名義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① 不殺人 不殺物, ② 忠孝雙全 濟世安民, ③ 逐滅倭夷 澄清聖道, ④ 驅兵入京 盡滅權貴 大振紀綱立定名分 以從聖訓 등이었다.¹⁶⁾ 이어 농민군들은

16) 『大韓季年史』, 『총서』 4, p. 363; 『時事新報』, 明治 27年 6月 8日字, 『총서』 22, pp. 292~293, p. 295. 『大韓季年史』에는 농민군이 3월 25일 4대명의를 제시한 것으로 기록

茂長의 富民들에게서 軍糧을 징수한 뒤¹⁷⁾ ‘輔國安民倡義’라고 쓴 깃발을 앞세우고¹⁸⁾ 농민전쟁을 시작하였다. 여기서도 농민군의 의식 속에는 ‘逐滅倭夷’, 곧 반외세에 대한 지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민군은 어떠한 외세라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개혁을 방해할 경우 언제라도 그에 맞서 싸울 준비는 되어 있었다. 그것은 경복궁 침범에 반대하여 일어난 제2차 봉기를 통해 확인된다.

그러나 고부민란에서도 반외세와 관련된 구호는 등장하지 않았고, <무장포고문>의 내용도 보국안민을 위해서는 그것을 저해하는 부패한 지방관은 물론 사육을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공경대부들을 척결해야 한다는 의지와 함께 그를 위해 최종적인 타도 대상은 부패한 閥氏 戚族勢力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외세에 대한 반대의 뜻이 분명히 제시되지 못하였다.

이후 제1차 농민전쟁이 전개되는 동안 여러 차례 제시된 농민군의 통문에서도 일본에 대한 반대는 물론 외세의 침탈에 반대하는 요구조건이나 구호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1888년 5월 군부와 내각 일각에서는 조선에 대해서는 “강경 수단을 써서 간섭주의를 시행하고”, 맹약을 맺어 “조선을 우리의 수중에 움켜쥐어야 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을 정도로 조선을 확보하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본은 조선에서 동학교도들의 움직임에 예의 주시하며 조선에 출병할 빌미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조선 정부가 농민군 진압을 위해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하자 일본은 재빨리 조선에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였다.

청나라에 대한 援兵 요청문제는 이미 1893년 3월의 보은집회 때에도 국왕에 의해 제기된 바 있었으나, 대신들의 반대로 성사되지는 않았다. 1893

되어 있으나,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러나 앞뒤의 내용과 연결하여 살펴볼 때 이용태의 만행으로 전봉준이 5~6만명의 농민군을 불러 모아 봉기하였고, 이때 4대명의를 내걸었다고 하여 농민군이 처음에 일어날 때, 곧 무장기포시에 4대명의를 내건 것으로 말하고 있다. 『時事新報』에도 농민군이 거병 당시에 4대명의를 내건 것으로 되어 있다.

17) 政府記錄保存所, 『判決宣告書原本: 全捧準』, 『東學關聯判決文集』, p. 29.

18) 『大阪朝日新聞』, 明治 5月 31日, 『총서』 23, pp. 11~13.

년 3월 25일, 고종은 領議政 沈舜澤·左議政 趙秉世·右議政 鄭範朝 등과 함께 동학교도를 진정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던 중 “중국에서는 그 전날 영국(英國) 군사를 빌려 쓴 일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청병을 빌려서 동학을 진압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심순택 등 대신들은 “만일 빌려 쓴다면 군량은 부득이 우리나라에서 바쳐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반대하였다.¹⁹⁾

1894년 3월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난 이후 조선 정부의 주요 인물들 가운데서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하자는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招討使 洪啓薰이었다. 4월 5일 오전에 군산항에 도착하여 6일에 상륙한 초토사 홍계훈은 막상 농민군과의 전투도 치르지 못한 상태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홍계훈이 인솔하던 경군들 가운데는 군산에 상륙한 이후 도망하는 자가 속출하여²⁰⁾ 군산에 도착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난 4월 12일경에 이미 그 수가 원래의 700명에서 470명 정도로 줄어들어 있었다.²¹⁾ 또 향병은 물론²²⁾ 도망한 경군까지 농민군에 합세하기도 하였다.²³⁾

이에 따라 4월 12일 홍계훈은 閱泳駿으로 추정되는 정부 요로의 인사에게 청병 一枝隊를 요청할 것을 제의하였다.²⁴⁾ 홍계훈의 요청을 받은 민영준은 4월 13일 국왕에게 청나라에 援兵을 요청하도록 제의하였다. 이에 대

19) 『日省錄』, 高宗 31年 3月 25日.

2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p. 1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4, p. 160; 『大阪朝日新聞』, 明治 27年 5月 31日, 『총서』 23, p. 11; 『萬朝報』, 明治 27年 6月 1日, 『총서』 22, p. 394.

21) 『內亂實記 朝鮮事件』, 『총서』 25, p. 177.

2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p. 62. 홍계훈은 鄉(土)兵은 믿을 수 없으며, 이들로 하여금 농민군을 공격하게 하는 것은 “無異 以蠻攻蠻”이라고 인식하여 향병들은 그들의 처지가 농민군들과 마찬가지로 지기 때문에 쉽사리 농민군에 합류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兩湖電記』, p. 94, p. 98 참조).

23) 『萬朝報』, 明治 27年 6月 6日, 『총서』 22, p. 402. 이와 같이 경군마저 농민군에 가담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초토사 홍계훈은 4월 19일 정부 요로에 전보를 보내 청국(자료에는 명나라로 誤記되어 있다) 군대를 빌어 농민군을 진압할 것을 요청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p. 28 참조).

2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 p. 144.

해 국왕은 14일 새벽 대신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으나 대신들은 반대하였다.²⁵⁾ 청국에 원병을 요청하자는 주장은 4월 19일 홍계훈에 의해 다시 한번 제기되었다. 역시 閔泳駿으로 추정되는 정부 요로의 인사에게 관군만으로는 농민군 진압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며 청나라 군대를 빌어 농민군을 진압하자고 건의하였다.²⁶⁾ 이러한 보고를 접한 민영준은 이후 청군 援兵 문제를 원세개와 여러 차례의 논의하였으며, 4월 29일에는 청병을 요청하는 공문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²⁷⁾ 4월 30일 밤에는 時原任大臣會議를 열어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할 것을 결정하고 이 같은 조선 정부의 뜻을 원세개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였다.²⁸⁾ 이에 따라 5월 5일 오후 6시경에 聶士成이 지휘하는 청군 1천명이, 5월 7일 오전 10시에는 葉志超가 이끄는 1천 5백명이 아산만에 도착하였다.²⁹⁾

한편 언제라도 파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던 일본 정부는 조선이 청에 원병을 요청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자, 4월 29일에 열린 임시각의에서 중의원을 해산한 다음 “만약 중국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명분을 쓰더라도 아국도 반드시 군대를 파견해야 한다”는 무쓰(陸奥宗光) 외상이 제출한 출병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어 조선 정부가 공식적으로 청에 원병을 요청한 것보다 하루 빠른 4월 29일 일병의 조선 출병에 대한 일본 천황의 재가가 떨어졌다. ³⁰⁾ 5월 4일에는 천진조약 제3조의 공동출병 규정에 의거하여 청국측이 청병 출병을 통보해오자 일본도 즉각 주북경 대리공사를 통해 천진조약에 따라 공관과 거류민을 보호하

2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p. 18.

26) 위의 책, pp. 28~29 참조.

27) 여기에 대한 상세한 전말은 위의 책, pp. 259~264; 『淸國之部』, 『동학농민전쟁관계자료집』 4(東學黨變亂 際日淸兩國韓國出兵雜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pp. 337~346 참조.

28) 『甲午實記』, 『東學亂記錄』 上, p. 8.

29) 李重夏, 『南征日記』, 『총서』 6, pp. 229~233; 『兩湖電記』, p. 125; 『東匪討錄』, p. 338;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p. 76, p. 8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4, pp. 176~177.

30) 후지무라 미치오 지음, 앞의 책, p. 82.

기 위해 출병한다는 사실을 청국에 통고하였다. 일단 1개 혼성여단 파견을 결정한 일본은 5월 7일부터 일본군을 인천에 상륙시키기 시작하여 5월 15일까지 5,000여 명의 군대를 상륙시켰다.³¹⁾

또한 일본 정부는 같은 날 오후 주한 일본공사에게 조선의 외무독관을 만나 1882년의 제물포조약에 따라 다시 일본 공사관에 호위병을 둘 것임을 통보하도록 했다.³²⁾ 일본은 5월 7일 일본공사관 보호를 구실로 해군 육전대 488명과 순사 20명을 인천에 상륙시켰고, 일본공사 오오토리(大鳥圭介)가 이를 이끌고 저녁 7시경 남대문으로 입경하였고 포대는 수로를 통해 그보다 앞선 오후 5시경에 입경하였다.³³⁾ 일본군이 조선에 출병하는 명분은 조일관계의 면에서는 1882년에 체결된 제물포조약 제5항, 청·일관계의 면에서는 1885년 체결된 천진조약 제3항에 근거한 것이었다.³⁴⁾

그러나 조선 정부에서는 농민군의 전주성 입성 이후 점차 관군이 우위를 확보해 나가자 이미 아산만에 도착해 있던 청나라 군대에 상륙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일본군에게도 철수를 요구하였다. 5월 5일 외무독관 조병직이 일본공사에게 5월 3일에 있었던 전투에서 관군이 승리한 사실을 알리는 洪啓薰의 전문을 제시하며, 일본군의 파병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5월 20일경까지 거듭 일본군의 철수를 요청하였다.³⁵⁾ 그러나 일본 공사관에서는 5월 19일에도 “南匪를 이미 평정하여 都下가 안정되었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철병을 완강히 거부하였다. 청국 군대 역시 조선 정부의 상륙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 6일 아산에 상륙하였다.³⁶⁾

31) 강호숙, 앞의 글, p. 19.

3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p. 269.

33) 박종근 저, 박영재 역, 앞의 책, p. 17. 이 때 일본 공사관에서는 호위 해군 병사가 300이라고 허위로 보고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p. 274).

3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p. 116, pp. 118~11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4, p. 15 참조.

35) 자세한 전말은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 pp. 255~27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pp. 269~27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4, pp. 11~15 참조.

36) 『南征日記』, 『충서』 6, pp. 231~232.

따라서 정부에서는 양국 군대의 철병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농민군이 진압되었음을 보여 주어야 했고, 서둘러 농민군측의 강화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초토사 홍계훈은 농민군이 요구한 폐정개혁안을 조정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하여 농민군을 무마한 다음 퇴로를 열어주고 물침표를 제공함으로써³⁷⁾ 농민군을 해산시켜야 했던 것이다.

농민군도 사정이 절박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전주성 점령후 관군이 날로 증가되면서 전주성의 농민군은 사실상 포위되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오히려 수세적 입장이 되었다. 특히 5월 3일에 벌어진 전투는 관군측의 대승리로 끝나면서 전세는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청·일군대의 출병 사실은 동요하고 있던 농민군 진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이미 4월 7일에는 招討使의 군대를 따라 청나라 정탐원 徐邦傑 등이 전주에 도착하였으며,³⁸⁾ 이에 따라 4월 10일을 전후한 무렵부터 전주에는 청나라 水兵이 군산에 상륙하여 농민군의 뒤를 덮칠 계획이 있다는 풍문이 나돌았다.³⁹⁾ 4월 17일에는 전황을 살피기 위해 청국인 丁得鵬 외 17명이 大丸砲 4坐 등을 가지고 洪啓薰의 경군을 따라 전주성에 도착하였다.⁴⁰⁾ 4월 18일에는 청국 병대 1천여 명이 부안포에 도착하였다는 소문이 나돌았다.⁴¹⁾ 5월 5일 청국군이 아산에 들어 온 직후에는 아산에 섭사성의 고시문이 붙었고,⁴²⁾ 5월 7일에는 ‘倡亂한 토비’를 진압하러 왔다는 청국 제독 섭지초의 고시문이 전주성 내에 나붙었으며, 5월 8일에는 섭사성의 고시문이 공주 營門과⁴³⁾ 아산에 나붙었다.⁴⁴⁾ 청국 군대의 고시문은 농민군 진영에도 전해졌다.⁴⁵⁾

37) 『兩湖招討隨錄』, pp. 209~218.

38) 『兩湖電記』, p. 86; 『隨錄』, p. 17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p. 51, pp. 61~62;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所藏文書』, 韓國東學黨蜂起一件, 『총서』 19, p. 207 참조.

3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p. 61.

40) 『兩湖電記』, p. 107; 『隨錄』, 『총서』 5, p. 17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p. 62;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所藏文書』, 韓國東學黨蜂起一件, 『총서』 19, pp. 198~20, p. 207 참조.

41) 『南遊隨錄』, 4월 20일조, p. 196.

4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p. 85.

43) 『大韓季年史』, pp. 366~367.

이와 같이 5월 6일 청국 군대가 아산에 상륙하고, 5월 7일 오후에는 일본공사 大鳥圭介가 군대를 이끌고 입경하는 등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5월 8일 아침 농민군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폐정개혁안>을 국왕에게 전달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전주성에서 철수하였다.⁴⁶⁾ 농민군 지도부로서는 청·일 양국 군대의 출병에 따라 조선이 청일간의 전장으로 되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외세’는 ‘봉건성’과 마찬가지로 다만 농민군의 공격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농민전쟁의 발발과 농민군의 행동과 생각을 규정하는 현실적 조건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은 이른바 ‘집강소 시기’와 제2차 봉기 시기 농민군의 생각과 활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집강소 시기 농민군의 활동과 일본

(1) 일본의 철병 거부와 경북궁 강점

전주성을 빠져나간 농민군의 움직임도 청·일 양국 군대의 동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농민군 지도부가 가장 시급하게 여긴 과제는 청·일병, 특히 청군의 철수였다. 외국군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그들을 철병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진정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했다.

일본군과 청나라군에서 농민군의 해산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 정탐인을 계속해서 파견하여 병력을 주둔시킬 빌미를 찾았다.⁴⁷⁾ 특히 청국과 戰端을

4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p. 85; 『동학농민전쟁관계자료집』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pp. 573~574.

4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p. 82.

46) 『兩湖電記』, p. 15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p. 95; 『大阪毎日新聞』, 明治 27年 7月 10日, 『총서』 23, pp. 255~256.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일본측에서는 일본 정부의 외무대신까지 나서서 농민군이 완전히 해산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만들기 위해 부심하였다. 일본인 정탐원들에게도 전주화약 직후 농민군의 동향에 대해 재발할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자,⁴⁸⁾ 일본 외무대신 陸奥宗光은 5월 12일 주한일본공사 大鳥圭介에게 다음과 같은 전문을 발송하였다

우리 군대의 철수가 지연되는 이유로 삼기 위해 각하는 공공연한 방법을 써서 공사관의 직원이나 영사관의 직원을 폭동이 일고 있는 지방에 파견하여 실황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실황조사는 가능한 한 느리게 할 것이며, 그 보고서는 고의로라도 평화로운 상태와는 반대가 되도록 작성케 할 것을 절망한다.⁴⁹⁾

이는 일본 정부가 청·일전쟁의 전단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부심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앞서 일본인 정탐원들의 보고대로와 같이 전주화약 이후 농민군의 동향은 해산하는 경로나 고부, 태인 등지에서 소규모의 농민군에 의한 부자집이나 吏胥輩에 대한 공격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평온을 유지하는 분위기였다.

조정에서도 농민군들이 완전히 해산한 것은 아니고 곳곳에 모여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⁵⁰⁾ 전주에 있는 경군을 서둘러 귀경하도록 지시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청국 군대와 일본 군대의 도성 입성에 따라 우선 국왕부터 신

47) 『兩湖電記』, p. 141, p. 147, p. 149. 청·일뿐만 아니라 당시 서울에 있던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농민군이 진압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다(『兩湖電記』, pp. 150~15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p. 1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pp. 112~11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4, p. 189.

48)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p. 1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pp. 112~11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4, p. 189.

4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p. 58, p. 123.

50) 『兩湖招討膽錄』, pp. 213~214; 『兩湖電記』, pp. 134~136;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pp. 111~112.

변보호가 요청되었다는 사정도 있지만,⁵¹⁾ 무엇보다 청·일 양국, 특히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5월 14일 외무독관 조병직이 일본공사 앞으로 보낸 글에 “남도의 비도들이 이미 평정되어 본국의 군병들도 철수하려고 하는데, 귀병들이 이곳에 있는 것은 참으로 무익한 것입니다”라고 한테서도 엿볼 수 있다.⁵²⁾

그러나 일본군은 조선의 철병요구를 일축했다. 또 5월 9일부터 일본공사와 청국의 원세개 사이에 공동철병을 위한 양국간의 교섭이 시작되었으나, 일본이 청국의 공동철병 제의를 거부하였으므로 결렬되고 말았다.⁵³⁾ 나아가 일본은 청·일전쟁의 사단을 마련하기 위해 청·일 양국에 의한 조선의 내정개혁을 제의하였다. 일본 정부는 5월 13일 “애당초 청국 정부는 십중팔구 우리의 제안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하에 내정개혁안을 청국 정부에 제안하였지만, 청국 정부는 조선의 변란이 진정되었고, 내정개혁은 “스스로 다스리고 고치는 일”이므로 외국이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반대하였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5월 19일 각의에서 조선에 대한 단독개혁 강행을 선언하고 외무성 문서과장 카토오 마스오(加藤増雄)를 조선에 파견하였다. 일본 정부의 단독개혁 지시를 받은 오오토리 공사는 5월 23일 고종에게 내정개혁위원을 임명하고 개혁에 관해 자신과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일본군의 철병을 선결문제로 삼으며, 지속적으로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⁵⁴⁾ 실제로 조선 정부에서는 농민군이 제시한 <폐정개혁안>에 대응하여 개혁을 진행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내정개혁을 빌미로 한 일본의 내정간섭을 배격하기 위해 6월 11일 내정개혁을 위한 기구인 校正廳을 설치하고 판관과 협판 등을 임명하였다.⁵⁵⁾

51) 『兩湖電記』, p. 132, p. 134, pp. 139~140, pp. 149~151 참조.

5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 p. 264.

53) 후지무라 미치오 지음, 앞의 책, pp. 91~92; 박종근, 앞의 책, pp. 27~33.

54) 박종근 저, 박영재 역, 앞의 책, pp. 36~42 참조.

55) 박종근, 위의 책, p. 177.

이후 수차례에 걸쳐 내정개혁을 강요한 일본은 조선 정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닥치자 이번에는 청군 驅逐을 일본에 의뢰하도록 협박하였다. 이에 대해 오오토리 공사는 6월 18일 최후통첩을 하며 6월 20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선 6월 17일 일본 대본영에서도 조선 주둔 일본군에게 “청국군이 늘어나면 스스로 결단을 내리도록 하라”며 사실상 청·일전쟁의 개전을 허락하였다. 이 점에서 6월 21일 자행된 일본군의 경북궁 강제점령은 사실상 청·일전쟁의 시작이기도 했다. 치밀한 작전계획을 준비하고 단행된 경북궁 강점 작전은 6월 21일 새벽 4시 20분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조선 군대는 강력히 저항하였으며, 조선 군대의 저항이 완전히 끝난 것은 오후 2시가 지나서였다.⁵⁶⁾

경북궁 점령은 국왕 고종을 사실상 포로로 삼고, 민씨 척족과 대립관계에 있던 대원군을 내세워 조선 정부를 일본에 종속시키고 청국 군대를 조선 밖으로 쫓아내기 위한 계획이었다. 이렇게 하여 청국과의 개전 명분을 확보하고 조선 군대를 무장해제시킴으로써 일본군이 청나라와 싸우는 동안 서울의 안전을 유지함과 동시에 군수품 수송과 징발 등을 모두 조선 정부의 명령으로 시행하는 편의를 얻는다는 목적 아래 계획된 것이었다.⁵⁷⁾ 이와 같이 일본은 경북궁을 점령하여 조선군의 무장을 해제한 다음, 친일내각을 수립하여 내정개혁을 추진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어 6월 23일에는 선전포고도 하지 않은 채 풍도 앞바다의 청국 함대에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청·일전쟁을 도발하였다. 청·일전쟁은 예상을 깨고 일본군의 일방적인 승전으로 이어졌다. 6월 27일의 성환전투에 패배한 데 이어 대규모의 육군을 평양으로 집결시킨 청군은 8월 17일 벌어진 평양전투의 황해대전에서도 크게 패배하였고, 일본군은 압록강을 넘어 중국의 요동반도까지 진격하였다. 이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

56) 일본군의 경북궁 강제 점령에 대한 자세한 전말은 나카즈카 아키라 지음, 박맹수 옮김, 『1894년, 경북궁을 점령하라』, 푸른역사, 2000 참조.

57) 위의 책, p. 65.

며, 일본은 조선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향후 대륙침략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

(2) 농민군의 대응과 농민군 집강소 활동의 제약

전주화약 이후에도 일부지역에서는 농민군과 反農民軍側 사이에 충돌이 있었지만, 농민군은 청·일군의 출병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를 맞아 일단 진정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조선 정부가 청·일에 대한 철병요구와 도성 방위를 위해 조선 정부가 전주에 파견되어 있던 京兵들을 서둘러 철수하면서 전라도 일대에 관군측의 군사력이 매우 취약해졌다. 이에 따라 金鶴鎭은 招討使가 전주를 떠나기 직전 5월 20일 전후⁵⁸⁾ 농민군측에 효유문을 보내 무장을 해제할 것과 조속한 해산을 촉구하는 한편 6개항의 수습방안을 제시하며, 관측에서 임명한 집강을 통해 농민군을 통제하려 하였다.⁵⁹⁾ 그러나 이 때부터 전라도 곳곳에서 농민군들의 활동은 오히려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⁶⁰⁾

김학진은 5월 하순경 농민군에게 다시 효유문을 내려 兵器를 반납하고 歸家安業할 것을 촉구하였다.⁶¹⁾ 그러나 특히 농민군에 의한 雪憤的 행동은 전봉준의 생각과도 합치하는 것이 아니었다. 현실적으로 청·일병의 철수가 당면의 관심이었던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부로서는 청·일병이 주둔하는

58) 효유문을 보낸 시점에 대해서는 金洋植, 「全州和約期 執綱所에 대한 研究史的 檢討」, 『史學志』 26, 1993. 주 81) 참조.

59) 『隨錄』, 甘結 茂朱, pp. 228~232; 『草亭集』 卷 7 公文, 再諭道內亂民文 甲午 5月, 『총서』 5, pp. 406~408.

60) 『甲午事記』, 『총서』 5, p. 41; 李炳壽, 『錦城正義錄』 甲編, 『謙山遺稿』; 『駐韓日本公使館記錄』 4, p. 212.

61) 『草亭集』 권 7 公文 「三諭道內亂民文」 甲午 5月 『東學農民戰爭史料大系』 5, p. 408. 「再諭道內亂民文」이 5월 19일 전후 나온 것으로 보아 「三諭道內亂民文」은 5월 하순으로 추정하였다.

빌미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농민군의 私的인 雪憤 행위나 농민군에 편승한 무뢰배들의 약탈을 금지시키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봉준은 5월 하순 김학진의 효유문이 나온 것과 같은 무렵인 5월 30일경에는 <義所>의 명의로 강경한 내용의 포고문을 내렸다. 포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道의 宗旨는 진실로 輔國安民에 있다. 다행히 국왕의 은혜를 입고 지금 귀화하려고 하는 바 어찌 天德을 더럽히고 감히 국명을 어길 것인가. 道人이라 칭하면서 본업인 농업에 힘쓰지 아니하고 민심을 선동하면 이는 곧 亂徒이다. 지금부터는 화해하고 근신하여 다시는 죄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만일 이같이 포고한 뒤에도 포고한 뜻을 준행하지 않으면 단연코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

甲午 5月 日 義所⁶²⁾

농민군의 사적 설분행위에 대한 단호한 금단조치와 귀가안업에 대한 강조이며, 5월 20일 전후에 나온 金鶴鎭의 효유문의 내용과 상응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전봉준의 의지와 달리 약탈적·분풀이적 행동이 곳곳에서 전개되었다. 전봉준은 일부의 농민군을 이끌고⁶³⁾ 각지를 순회하며 농민군의 귀가를 독려하였고,⁶⁴⁾ 손화중 역시 右道 列邑을 돌며 농민군들의 귀화를 독려하였다.⁶⁵⁾ 그러나 이들의 힘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하였다. 전봉준 등 지도부의 통제력에는 한계가 노출되고 있었던 것이다.⁶⁶⁾ 이에 따라 전봉준은 김학진과의 협의를 통해 농민군의 설분적 행동을 금지시키고자 하였다. 전봉준과 김학진간의 긴밀한 협의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⁶⁷⁾

6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pp. 210~213.

63) 공초에서는 최경선을 포함하여 20여 명이라고 밝혔다(『全瑋準供草』, 四招問目, p. 370).

64) 『全瑋準供草』, 四招問目, pp. 368~369.

65) 위의 책, p. 370

66) 『梧下記聞』 수필, p. 107.

67) 이에 대해서는 배항섭, 「집강소시기 동학농민군의 활동양상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보』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부와 金鶴鎭 사이에는 몇 차례의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양자간에는 ‘相和’할 수 있는 여지가 형성되어 갔다. 그 배경은 양자 모두 청·일 양국 군대의 철병이라는 당면과제를 앞두고 撫局 내지 치안의 유지가 요청되었으나 어느 일방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전봉준과 김학진간에 ‘관민상화’를 성립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6월 21일에 일어난 일본군의 경복궁 강점과 청·일전쟁의 발발이었다. 일본군의 경복궁 강점이라는 사태는 전봉준, 김학진 모두에게 대외적 위기의식을 고조시켰다. 또한 청·일전쟁의 발발에 대해 전봉준은 “우리들의 거사는 생각지도 않게 오늘 청·일이 조선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실마리가 되기에 이르렀는 바 우리는 이를 천추의 유감으로 생각한다”⁶⁸⁾고 할 정도로 심각한 ‘민족적 위기’로 인식하였다. 이는 앞으로 전봉준의 생각과 행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7월 6일에는 전봉준이 “함께 國難을 극복하자”는 전라감사 김학진의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양측의 합의에 의한 ‘관민상화’의 방책이 성립되었고,⁶⁹⁾ 농민군의 활동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이후 전봉준은 撫局을 유지하는 가운데 ‘官民相和’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급적이면 물리적인 충돌 없이 폐정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일본군이 개입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동지들의 분격을 가라앉혀 私的 雪憤 행동을 통제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官民相和에 충실하고자 한 전봉준의 노선과 앞서 언급한 바 각지의 농민군들이 실제적으로 전개한 활동 가운데는 서로 합치하지 않는 면이 적지 않았다.

전봉준은 민족적 위기를 당면의 과제로 설정하고 거기에 맞추어 행동하고자 하였다. 특히 전봉준은 경복궁 강점이 일어나기 전부터도 이미 일본의 출병에 대해 壬辰倭亂 때 일본이 내세운 ‘征明假道’를 연상하며 그들의

153, 1997 참조.

68) 『日清交戰錄』 12, 明治 27年 10月 16日, p. 43.

69) 『梧下記聞』 2필, pp. 179~180.

침략의도를 간파하고 있었다.⁷⁰⁾ 이에 따라 농민군 지도부는 민족적 위기상황에 규정되어 압도적인 힘을 가진 ‘橫暴한 強賊’인 일본군의 경북공 강점에 대해 임진왜란의 참화를 상기하며 “국가가 멸망하면 생민이 어찌 하루라도 편할 수 있을까”라는 인식하에⁷¹⁾ 시세를 관망하며 官民相和를 도모하면서까지 일종의 연합전선을 추구하고 있었다.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손화중은 집강소 활동이 한창 진행중이던 8월 말경 “우리가 붕기한 지 이미 반년이 지나갔다. 비록 호남 일도가 호응하였다 하나 士族으로 有聲者나 재산이 있는 사람과 能文之士들은 추종하지 않았으며, 우리를 추종하여 집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대개 어리석고 천하여 禍를 즐기거나 빼앗고 훔치는 일을 즐겨하는 무리들뿐이다. 세상인심의 향배를 가늠해 보면 일은 성사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사방으로 흩어져 온전히 살아남는 길을 도모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하여 士族이나 부자, 지식인 등을 중요한 역량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⁷²⁾

이러한 지도부의 전략은 소빈농 내지 상천민이 주축을 이루던 농민군 대중들이 추구한 雪憤의 ‘반봉건’ 활동과는 갈등의 여지가 많았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목은 원수의 보복’ 등 눈앞의 이해였으며, 거기에는 재산의 토색 등 약탈행위가 뒤따르기도 했다. 특히 무뢰배들이 편승하여 활동하게 되면서 각지에서 撫局을 깨뜨리는 행동들이 일어났다. 집강소 시기에는 새로운 농민군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왔고, 이들 가운데는 농민군의 힘에 편승하여 개인적 설분이나 약탈, 혹은 致富를 위해 뛰어난 ‘무뢰배’들도 적지 않았다.⁷³⁾ 지도부에서는 그들의 설분행동을 금지하며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농민군 내부에도 크고 작은 갈등이 노출되었다.

70) 海浦篤彌, 『東學黨視察記』, 『日本人』 18, 명치 28년 2월 3일, p. 130.

71) 『동경조일신문』 1895년 3월 5일.

72) 『梧下記聞』 2월, pp. 210~211.

73) 『동학사』, pp. 508~510; 『梧下記聞』, 2월, pp. 109~110; 『廉記』 참조.

농민군 지도부와 농민군 대중간에는 외세의 침략행위와 그에 따라 변화된 정세에 대한 인식상의 차이로 말미암아 폐정개혁 활동의 체계적인 시행이 제약받고 있었음을 말한다. 오히려 설분적 반봉건 활동은 농민군에 대한 지지기반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오지영도 집강소 시기 전라도 作亂의 일은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였다.⁷⁴⁾ 나아가 이 시기를 통해 오히려 지도부 간에도 내분의 조짐이 일어났다. 8월말 무렵 전봉준과 손화중 등 농민군 지도부는 농민군에 대해 “鳥獸之衆에 불과”하거나, “어리석고 천하여 禍를 즐기거나 빼앗고 훔치는 일을 즐겨하는 무리들”이어서 그들을 가지고는 “뜻을 이룰 수 없다”는 평가를 하게 된다.⁷⁵⁾ 이러한 사실은 농민군의 체계적인 폐정개혁 활동의 추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고, 그 시기가 체계적인 집강소 활동을 통한 내적 통합도 그만큼 취약해졌음을 의미한다.

5. 제2차 봉기와 일본군의 농민군 살육

농민군이 1894년 9월에 들어 다시 일어난 일차적인 목적은 일본의 침략행위를 물리치고 輔國安民하려는 데 있었다.⁷⁶⁾ 6월 이후에는 일본의 경복궁 강점과 청·일전쟁 개전, 내정간섭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 속에서 일본의 침략의도가 점차 노골화하였다. 이에 따라 농민군 지도부, 특히 全琫準의 관심은 폐정개혁으로부터 반외세 문제, 곧 ‘斥倭’ 쪽으로 급격히 선회하였다.⁷⁷⁾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여 국가가 멸망한다면, 폐정개혁은 고사하고 生民이 하루도 편히 살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

74) 『東學史』, pp. 508~510, p. 529.

75) 『梧下記聞』 2권, pp. 210~211.

76) 『全琫準供草』, 『東學思想資料集』 壹, 亞細亞文化社, 1979, pp. 318~319 및 p. 340, p. 362.

77) 裴亢燮, 『執綱所 時期 東學農民軍의 활동양상에 대한 一考察』, 『歷史學報』 153, 1997 참조.

이다.⁷⁸⁾

再起包를 결심한 전봉준은 9월 10일경 삼례에 大都所를 설치하고 기병준비에 착수하였다. 전봉준은 각지의 官衙에도 재기병을 알리는 통문을 보내 군수품 조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였다.⁷⁹⁾ 전봉준의 재기포 결정이 북접과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⁸⁰⁾ 전봉준은 北接(東學教壇)과의 연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 북접에 함께 기포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倡義를 빙자하고”, “우리 북접을 끼고 때를 틈타 함께 일어나려 했지만”이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에 북접이 관청과 일본군 병참소에 북접과 남접을 구별하기 위해 보낸 글 속에 전봉준과 서장옥이 “북접을 끼고 때를 틈타 함께 일어나려 했지만”, “북접은 스승의 훈계를 각별히 따라 굳게 거절하고 따르지 않았다”라고 한 구절이 들어 있는 데서 알 수 있다.⁸¹⁾

드디어 9월 18일 崔時亨은 각 포의 접주들을 청산에 불러 모으고 “교도들을 동원하여 전봉준과 협력하여”,⁸²⁾ “先師의 宿冤을 快伸하고 宗國의 急難에 同赴할” 것을 지시하였다.⁸³⁾ 함께 起包하자라는 전봉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무렵부터 전국 각지에서 농민군들이 본격적인 起包를 시작하였다.

한편 8월 16일 벌어진 평양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청·일전쟁의 승기를 잡은 일본은 본격적인 내정간섭을 시작하였으며,⁸⁴⁾ 농민군의 제2차 봉기가 전면적으로 시작되는 9월 10일 이전부터 농민군 진압에 일본군을 직접 투

78) 『東京朝日新聞』, 明治 28年 3月 5日, 『총서』 22, p. 367.

79) 동학농민군의 제2차 봉기에 대해서는 배항섭, 『반일투쟁의 전개』,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1999 참조.

80) 『全瑋準供草』, p. 343.

81) 『侍天教歷史』(『東學思想資料集』參), p. 625.

82) 『天道教創建史』(『東學思想資料集』貳), p. 155.

83) 『天道教會史草稿』, p. 461.

8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 pp. 232~233.

입하기 시작하였다.

일본군 전선가설대와 병참부 도로수선대 등이 파견되자 경상도 일대에서는 7월 초순부터 전선 파괴 등 조선인들의 반일투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조선 인부들과 우마를 징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정찰 나온 일본군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⁸⁵⁾ 이에 따라 부산 병참감에서는 사실상 농민군 탄압을 시작하였다. 일본군에 의해 공식적으로 농민군 진압이 시작되기 전에 농민군 탄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⁸⁶⁾

한편 8월 29일 일본군의 출병이 대원군에 의해 거부되었으나, 오오토리 공사는 9월 14일에 “조선 정부가 동학당 토벌을 위해 일본군의 급파를 요청”하였다고 무쓰에게 전문을 보냈다. 그러나 이는 조선 정부의 공식적 요청이 아니라 개화와 내각의 구두 요청에 불과하였다. 조선 정부가 일본측의 제의를 받아 동학농민군 진압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9월 20일이였다. 그러나 그보다 일주일이나 앞선 9월 13일 일본군 부산부비대장은 병참총감으로부터 “전라도 동학당 攻破” 명령을 받았다. 이어 9월 17일에는 농민군 진압을 위해 일본군을 남하시키기로 결정하였고, 19일에는 2개 소대를 남하시켰다. 1개 소대는 原田 소위가 이끌고 용인, 죽산을 거쳐 충주 지방으로, 1개 소대는 鈴木 特務曹長이 이끌고 수원, 진위, 천안을 거쳐 공주로 가도록 하고, 후자는 다시 두 개의 대로 나누어 하나는 아산, 평택, 홍주로 향하게 할 예정이었다.⁸⁷⁾

9월 24일 인천에 있던 일본군 병참감은 병참총감에게 오로지 농민군 ‘섬멸’을 위한 수비병 2개 중대의 증파를 요구하였고, 9월 29일에는 병참총감으로부터 “동학당에 대한 처치는 嚴烈함을 요구한다. 향후 모조리 섬멸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⁸⁸⁾ 농민군 ‘섬멸’을 위해 10월 2일 일본에서 출발한

8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pp. 333~335, pp. 272~279.

86) 강효숙, 앞의 글, pp. 22~23.

87)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pp. 284~289, pp. 355~356; 『駐韓日本公使館記錄』 5, p. 64.

88) 박종근, 앞의 책, pp. 217~219; 강효숙, 앞의 글, pp. 24~25.

일본군 후비보병 독립 제19대대의 본부 및 제1·2중대는 10월 9일, 제3중대는 13일 인천에 도착하였다.⁸⁹⁾ 이들은 14일 용산에 집결하였고, 10월 15일에서 17일 사이에 농민군 진압을 위해 남하하였다.⁹⁰⁾ 10월 19일에는 용산수비대 1개 중대가 뒤따라 출발하여 동로분진대와 합류하여 농민군 진압에 추가로 투입되었다.⁹¹⁾

일본공사 이노우에는 미나미가 인솔한 제19대대가 인천에 도착한 10월 9일에 조선의 외무대신 金允植에게 서한을 보내 앞으로 농민군 진압에 임하는 조선군과 각 지방관에게 일본군 장교의 지휘를 따르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⁹²⁾ 후비보병 독립 제19대대가 남하하기에 앞서 10월 13일 인천병참사령관 육군포병 중좌 이토오(伊藤祐義)는 일본공사 이노우에에게 농민군 진압계획을 보고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충청·전라 각지 東學黨의 근거지를 剷節하라.
2. 조선 정부의 요청에 의해 후비보병 제19대대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길로 分進하여 조선군과 협력, 沿道에 있는 동학당을 격파하고 그 화근을 剷滅함으로써 동학당이 다시 흥기하는 후환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두머리로 인정되는 자는 체포하여 경성 공사관으로 보내고, 동학당 거물급간의 왕복문서, 혹은 정부내부의 관리나 지방관, 또는 유력한 측과 동학당간에 왕복한 문서는 힘을 다해 수집하여 함께 공사관으로 보내라. 이번 동학당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조선군 각 부대의 진퇴와 調達은 모두 일본군 士官의 명령에 따르게 하고, 일본 군법을 지키게 하며, 만일 군법을 위배하는 자가 있으면 군율에 따라 처리하기로 조선 정부로부터 조선군 각 부대장에게 이미 하달되었다.
3. 보병 1개 중대는 西路, 즉 수원·천안 및 공주를 경유, 전주부 街道를

8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p. 249, pp. 369~373.

9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p. 6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p. 249; 『大阪朝日新聞』, 明治 28年 2月 13日, p. 157.

9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pp. 300~301.

9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p. 150.

진진하여 그 진로 좌우의 驛屯을 정찰하라. 보병 1개 중대는 中路, 즉 용인·죽산·청주를 경유, 성주 가도로 진진하여 그 진로 좌의 역읍을 정찰하라. 보병 1개 중대는 東路(일본 병참선로), 즉 가흥·충주·문경 및 낙동을 경유, 대구부 가도로 진진하여 그 진로 좌우의 역읍을 정찰하라. 본부 중대는 중로 분진대와 함께 행진하라.

4. 동로 分進中隊를 조금 먼저 가게 해서 匪徒를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즉 전라도 방면으로 내몰도록 힘써야 한다. 만일 비도들을 강원도와 함경도 쪽, 즉 러시아 국경에 가까운 곳으로 도피케 하면 적지 않게 후환이 남을 것이므로 엄밀히 이를 예방해야 한다.⁹³⁾

일본군의 농민군 진압 계획의 요체는 농민군을 서남방 전라도 해안쪽으로 몰아넣은 다음 함세하여 ‘초멸’ 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서, 중, 동세 갈래로 나누어 남하하되 동로분진대에 1개 중대를 증원하고 중로, 서로 분진대보다 빨리 남하하도록 하여 강원도·경상도의 농민군을 전라도 쪽으로 내몰도록 한 것이다.⁹⁴⁾

농민군 진압에 투입된 일본군의 규모는 약 1,900여 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⁹⁵⁾ 이후 일본군에 의해 무자비한 농민군 살육이 진행되었다. 동학농민군에 대한 탄압은 근대 일본 군대가 저지른 아시아 민중대학살(제노사이드)의 최초이자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⁹⁶⁾

한편 11월 8일부터 시작된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한 농민군들은 노성으로 물러나 진영을 수습하려 하였다. 이 때 농민군은 東徒倡義所의 이름으로 11월 12일 京軍과 營兵, 吏校 및 市民에게 알리는 글을 순한글로 고시문을 내걸어 斥倭와 斥化를 위해 동심협력할 것을 호소하였다.

9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pp. 153~156; 『駐韓日本公使館記錄』 5, pp. 67~68.

9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pp. 301-30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5, pp. 65~66.

95) 趙景達, 『異端의 民衆反亂: 東學と甲午農民戰爭』, 岩波書店, 1998, p. 305 참조.

96) 井上勝生, 「갑오농민전쟁(동학농민전쟁)과 일본군」, 『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적 의미』, 서경, 2002, p. 318.

통상이후(通商以後) 갑신십월의 스흉(四凶)이 협적(挾敵)하야 군부(君父)의 위태(危殆)하미 도석(朝夕)의 잇더니 종사(宗社)의 흥복(鴻福)으로 간당(奸黨)을 소멸(消滅)하고 금년늑월의 기화간당(開化奸黨)이 왜국(倭國)을 처결(締結)하여 승야입경(乘夜入京)하야 군부(君父)를 꺾박(逼迫)하고 국권(國權)을 천즈(擅恣)하며 우황 방빅수령(方伯守令)이 다 기화중 쇼속으로 인민을 무휼(撫恤)하지 안이코 살륙(殺戮)을 조하하며 싱녕(生靈)을 도탄(塗炭)하미 이제 우리 동도가 의병을 드러 왜적을 소멸하고 기화를 제어하며 도정(朝廷)을 청평(淸平)하고 스직(社稷)을 안보홀시.⁹⁷⁾

동학농민군의 제2차 봉기에서 보이는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양한 세력을 포괄하는 항일연합전선의 구축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10월 16일 전봉준이 충청감사 박제순에게 올린 글이나⁹⁸⁾ 위의 고시문에서 강조하는 관료 및 경군·영병에 대한 합세 촉구는 제1차 농민전쟁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던 주장이다.

이미 5월초 청·일 양국군이 조선에 출병하고, 이후 일본군이 내정개혁을 강요하는 데서 나아가 경복궁을 강점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키자, ‘반외세’, 특히 反倭 문제는 전봉준의 초미의 관심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늦어도 1893년 초부터 광범위한 계층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던 전봉준의 연합구상도 더욱 강화되어 갔다. 전봉준은 전라감사 金鶴鎭이 7월 6일 ‘共守全州 同赴國難’하자고 제의하자 고심 끝에 전주로 가서 전라감사 김학진과 “官民相和”를 맺고 함께 협력하여 국난을 극복하기로 약속하였으며, 土族이나 지주층까지도 포괄하는 ‘반외세’를 위한 ‘민족적 대연합’을 통해 광범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연합의 성격과 대상면에서 제1차 농민전쟁 시기와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동학농민군의 궁극적 목표는 ‘輔國安民’으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1차 농민전쟁 시기에는 이 가운데 ‘安民’ 쪽을

97) 『東學亂記錄』 下, pp. 379~380.

98) 위의 책, pp. 383~384.

우선 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반봉건’ 개혁을 위한 ‘계급중심의 연합’이었다면, 제2차 농민전쟁 시기에는 ‘輔國’을 우선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斥倭斥化 투쟁을 위한 ‘반외세 연합’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제1차 농민전쟁에서는 기본역량을 “양반과 부호의 앞에 고통받는 民衆과 方伯守令 아래서 굴욕을 받는 小吏”에서 구하였다.⁹⁹⁾ 이러한 맥락에서 ‘반봉건’ 개혁, 특히 민씨 정권의 축출이라는 면에서 농민군과 개화파간의 연합가능성은 열려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제2차 농민전쟁에서는 개화파세력이 일본과 함께 가장 주요한 타도대상이 되었다. 반면에 “조상의 뼈다귀를 우려 행악을 하여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양반·보수유생층은 제1차 농민전쟁에서는 중요한 공격대상이었지만, 斥倭斥化를 1차적 과제로 한 제2차 농민전쟁에서는 보수유생층이 중요한 연합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¹⁰⁰⁾

제2차 봉기 이후에 농민군측에서 내건 격문이나 통문 등에서 보이는 구호에도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보수적 내용이 강조되었다. 전봉준에 앞서 10월 15일에는 농민군측에서는 ‘公州倡義所 義將 李裕尙’ 명의의 글을 박제순에게 올렸다. 이 글에서 이유상은 “감히 물건대 청나라를 막자는 것인가 일본을 막자는 것인가 의병을 막자는 것인가. 청나라를 막자는 것은 大義를 멸시하는 것이고, 義兵을 막자는 것은 그 계책이 잘못되었다. 일본을 막자는 것은 壬辰倭亂 이후 누군들 이러한 마음이 없었겠는가”¹⁰¹⁾라고 하여 역시 임진왜란 이래의 대일 적대감을 강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청에 대한 적대는 大義를 어그러뜨리는 것이라 하고 있어서 강한 ‘反日親淸的’ 태도와 함께 斥邪的, 華夷論的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전봉준도 박제순에게 보낸 글에서 ‘日寇’의 침략행위로 말미암아 국왕이

99) 『東學史』, 『東學思想資料集』 貳, pp. 467~468.

100) 이에 대해서는 배항섭, 『1894년 동학농민군의 반일항쟁과 ‘민족적 대연합’ 추진』, 『軍史』 35, 1997 참조.

101) 『東學亂記錄』 下, pp. 381~382.

욕을 당하는 일, 조정대신(개화파-필자)들이 東夷와 連腸하여 국왕을 협박하고 백성들의 원한을 산 일 등을 임진왜란 당시 국왕이 욕을 당한 치욕과 통분 등을 연결하여 강조하고 있다. 또 선왕의 적자로서 二心을 품은 자(개화파-필자)들을 공격하여 선왕조 오백년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일어섰음을 강조하며 박제순에게도 斥倭斥化 투쟁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전봉준의 글은 물론 '민족적 대연합'을 추진하기 위한 전술적 고려가 전제된 것이지만, 일본의 침략이라는 민족적 위기를 당하여 전봉준의 의식 속에 온존되어 있던 근왕주의적 의식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또 11월 13일의 고시문에서는 척왜척화를 위한 연합전선에 대한 강조와 동시에 반왜 의식의 강렬함이 왜와 체결한 개화간당에 대한 소멸, 나아가 개화 자체에 대한 제어까지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이 개항 이후로까지 이어져 결국 일본과 연결된 개화파에 대한 반대로까지 연결되었고, 나아가 보수적 세력, 그리고 청나라와는 오히려 연합하는, 불구적인 '반봉건 반외세'의 양상을 보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동학농민전쟁 발발 이후 일본군의 출병과 침략행위, 나아가 농민군에 대한 직접적인 진압과 살육은 동학농민전쟁의 전개과정과 농민군의 활동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 때문에 농민군에 의해 아래로부터 형성되어 가던 근대적 민족주의가 대내적 측면에서도 보수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예컨대 제1차 농민전쟁 시기에 농민군이 내건 기치인 '輔國安民'의 무게 중심이 '民'에 있었으나, 일본군이 출병하고 그들의 침략행위가 가시화되면서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되자 '보국안민'의 무게 중심도 '민'보다는 '國'으로 바뀌어져 갔다. 제1차 농민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무장포고문>에서 "백성들은 국가의 근본으로 근본이 위축되면 국가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급함을 좌시할 수 없어 팔도가 마음을 합치고 억조가 순의하여 지금 의의 깃발을 치켜들고 보국안민으로 죽음의 맹서"를 하고 일어났음을 포고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의도가 명백해진 뒤 이에 반대하여 일어난 제2차 봉기에 임해서는 "국가가 멸망하면 生民이 어찌 하루라도 편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국가와 멸망을 함께” 하기 위해 재기포를 결심하였다고 하였다.¹⁰²⁾ 후자의 경우 ‘民惟邦本’의 이념에 입각하여 안민의전방책을 도모하는 것이 보국안민의 당면과제로 설정되고 있으나, 후자의 경우 국가의 존망 자체가 당면과제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후자의 경우 ‘민’을 중심에 둔 보국안민을 추구하였다면, 전자의 경우 ‘국’을 중심으로 한 보국안민이었다. 이는 곧 외세의 침략행위와 그에 대한 항쟁 과정에서 체제구상도 보수화할 개연성이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일본군의 개입과 침략행위, 나아가 일본군의 농민군 진압과 살육행위는 아래로부터 형성되어간 ‘근대적 민족주의’의 내용을 보수화하거나 국가주의적 요소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6. 맺 음 말

1893년 초부터 시작된 척왜양 운동에서 변혁지향적 동학교도들은 ‘척왜’와 ‘척양’을 내걸고 거병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아직 대다수의 민중들에게 척왜양 구호는 목숨까지 걸고 항쟁의 대열에 뛰어들게 할 만큼 설득력 있는 구호는 아니었다. 실제로 척왜양 운동 시기에 동학교도들에 의한 외국인이나 외국공관에 대한 공격도 없었다. 이에 따라 척왜양 운동은 실패로 끝났고, 1894년 3월 20일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반일을 주장하는 민중들의 움직임은 1893년 11월에 일어난 개성민란에서 난민들이 “일본인을 붙여서 살게 하는 자는 그의 집을 부술 것”을 주장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102) 『大阪朝日新聞』, 明治 28年 3月 3日, 『총서』 23, p. 168; 『東京朝日新聞』, 明治 28年 3月 5日, 『총서』 22, p. 367.

그러나 이미 1887년 무렵부터 청·일간의 전쟁을 예견하며 조선에 대한 침략 계획을 세워두고 있던 일본은 상인으로 변장한 일본군을 투입하여 동학교도들의 동태를 정탐하였으며, 1893년 12월에는 군함 筑波호와 大島호를 파견하여 조선에 대한 정보 및 첩보활동을 하며 조선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1894년 3월 동학농민전쟁이 발발하자 조정에서는 4월 30일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하였고, 이를 기화로 일찍부터 조선 침략과 청·일전쟁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본에서는 조선 정부가 공식적으로 청에 원병을 요청한 것보다 하루 빠른 4월 29일 일병의 조선 출병에 대한 일본 천황의 재가가 떨어졌다. 일본은 5월 7일부터 군대를 인천에 상륙시키기 시작하여 5월 15일까지 5,000여 명의 병력을 조선에 출병시켰다.

이후 농민군이 <전주화약>을 맺고 전주성에서 해산하여 더이상 병력을 주둔시킬 명분이 없어졌고, 조선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철병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끝내 철병을 거부하였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에 내정 개혁을 강요하고 경복궁을 강점하는 등 침략행위를 노골화하며 청·일전쟁을 준비하여 갔다. 이에 따라 농민군 지도자 전봉준의 초미의 관심은 급격히 反倭 쪽으로 경사되었고, 7월 초에는 “함께 國難을 극복하자”는 전라감사 김학진의 제의를 받아들여 ‘관민상화가’ 이루어졌다. <官民相和>는 어느 일방의 입장만을 고집할 수 없는 타협적 국면이었기 때문에 폐정개혁의 내용과 방법에는 제약이 따랐다. 더구나 일본군의 경복궁 강점이라는 노골적 침략행위는 전봉준으로 하여금 이미 오래 전부터 지향하고 있던 광범위한 계층을 포괄하는 연합의 실현을 더욱 절박하게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전봉준은 <관민상화>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지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농민군들과 무뢰배들의 사적 설분행동이나 약탈행위를 통제하는 한편, 관측과의 相和는 물론 사족과 재산이 있는 자들까지도 포괄하는 연합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전봉준의 입장은 ‘반봉건’ 개혁의 수준이나 내용면에서 일정한 양보와 후퇴가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농민군 지도부와 농민군 대중간에는 외세의 침략행위와 그에 따라 변화된 정세에 대한 인식상의 차이로 말미암아 갈등이 노정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은 농민군의 체계적인 폐정개혁 활동의 추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고, 그 시기가 체계적인 집강소 활동을 통한 내적 통합도 그만큼 취약해졌음을 의미한다.

이어 8월 말부터 일본군에 의한 농민군 공격과 진압이 사실상 시작되었고, 10월 초에는 동학농민군 진압만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일본군이 출병하였다. 이들의 목적은 농민군의 근거지를 초멸하는 것이었고, 농민군과 일본에 반대하는 조선 민중에 대한 대대적인 살육이 이어졌다. 농민군의 제2차 봉기는 경북궁 강제점령과 농민군 진압 등 일본의 침략행위에 반대하여 일어난 것이다. 전봉준은 항일투쟁을 위해 보수유생층과 관료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계층의 연합을 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봉준의 의식 속에 온존되어 있던 근왕주의적 의식이 강하게 표출되었고, 농민군이 내건 기치인 ‘輔國安民’의 무게 중심도 제1차 봉기에서는 ‘民’에 두고 있었으나, 제2차 봉기에서는 ‘國’으로 바뀌어져갔다. 이에 따라 농민군 지도부가 취한 ‘민족적 대연합’의 원칙도 제1차 농민전쟁 시기에는 지배층에 수탈·억압받던 ‘계급우선’의 원칙이었으나, 제2차 농민전쟁에서는 ‘斥倭斥化’의 원칙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는 곧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일본군의 개입과 침략행위, 나아가 일본군의 농민군 진압과 살육행위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투쟁과정에서 아래로부터 형성되어간 ‘근대적 민족주의’의 내용이 보수화하고 국가주의적 요소가 강화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원고투고일 : 2004. 10. 18, 심사완료일 : 2004. 11. 10)

주제어 : 동학농민전쟁, 전봉준, 일본군의 침략행위, 일본군의 출병, 일본군의 농민군 진압

<ABSTRACT>

The Japanese Forces Intervention and Its Effects
during the *Donghak* Peasant War

Bea, Hang-seob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Japanese Forces Intervention and the process of the *Donghak* Peasant War. Since 1882, Japan prepared for the war against *Qing*(清) China by strengthening its military forces, and some military officers planned the Invasion of the *Joseon* as early as in 1887. The *Donghak* Peasant Army rose in March, 1894, and Japan decided to dispatch her 5,000 soldiers to *Joseon* one day before *Joseon* asked *Qing*, China for the military assistance. Japan rejected to withdraw its army despite *Joseon's* repetitive request and *Qing's* proposition of simultaneous withdrawal of their troops from *Joseon*. Further Japan occupied the *Gyeongbok* Palace on June 21 and disarmed the *Joseon* Forces. Two day after, Japan attacked *Qing*. The second uprising of the Peasant Army began from September 10, and Japan responded by dispatching more troops, leading to the massacre to the early of 1895.

The Peasant War became centered around the anti-Japan issues. But, the increasing conflict between the leading group including *Jeon Bong-jun* and peasants resulted in failure of the series of reforms. This also brought the conservative nature of nationalism which was just being formed among the peasant groups. While the First Peasant War focused on the issue of

'people', Japanese Military Intervention turned the focus to the issue of 'nation'.

Key Words : *Donghak* Peasant War, *Jeon Bong-jun*, Japanese Forces Intervention, Dispatch Japanese Forces, Japanese Forces suppressed the Peasant Army

K C I